

# 황룡사·감은사 대중 찾는다

감은사지대 대종현과 대종현 입구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황룡사대종과 감은사대종에 대한 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시장 이원식)는 지난 6월말부터 대종발굴을 위해 관련 문헌 수집, 발굴업체 물색, 예산안 작성 등의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대종탐사가 거론되기는 이번이 네번째. 80년대 초 당시 경주박물관장이던 한병삼씨에 의한 탐사, 89년 미군기추락대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탐사, 95년 울산겨우 박재홍씨에 의한 탐사신청 및 허둥지둥 지금까지 3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시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가 이번 탐사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 4월25일 감은사지 동탑에서 사리장엄구 등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된 것이 자극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이 발견되면 황룡사와 감은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어느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시 문화과장 서용봉씨는 "위낙 발굴지역이 넓어 장기적 대공진공의 6배에 달한다. 고려 고종25년(1238년) 몽고침입시 대종을 탑재해 자국으로 반출하려다 대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배가 대본천(대종천)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감은사대종은 제작년도와 규모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종을 반출하려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우에 의해 배가 파손되어 왜군들은 죽고 대종만 문무대왕암 곁에 가라앉아 파도만 치면 바다속에서 종소리가 울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이 발견되면 황룡사와 감은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어느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시 문화과장 서용봉씨는 "위낙 발굴지역이 넓어 장기적 대공진공의 6배에 달한다. 고려 고종25년(1238년) 몽고침입시 대종을 탑재해 자국으로 반출하려다 대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배가 대본천(대종천)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감은사대종은 제작년도와 규모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종을 반출하려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우에 의해 배가 파손되어 왜군들은 죽고 대종만 문무대왕암 곁에 가라앉아 파도만 치면 바다속에서 종소리가 울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남북통일 초석 다지자” 발원...네번째 시도 경주시 문헌수집·예산 등 탐사 기초작업중

## 천태불교문화연구원 11월 개원

천태학 연구·포교·출판 등 역점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지난 6월27일 서울 양재동에서 천태학 연구 및 포교방법

연구를 담당할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권원기사 4면>



태고종 초대방장 추대

태고종 총무원(원장 해초)은 지난 4월 오후2시 순천 선암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종림 초대방장 추대식을 진행했다. 추대 태고종림 방장 덕암스님은 개방법어에서 "선종을 진척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등 육신을 비쳐 선인사 복원할사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선암사=김원기 기자>

## 사찰관리 프로그램 '이뤄꼬' 출시 원도95 이용...마우스 입력기능 단순화

정보기획 서명이 사찰관리 프로그램 '이뤄꼬' 발매를 시작했다. '이뤄꼬'는 원도 95시스템을 이용 사용자가 컴퓨터에 익숙치 않더라도 마우스를 이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부분의 기능을 단순화 최소화시켰다.

신도의 개인현황은 물론 가족사항, 법회참석률, 불사참여도 등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개인관리를 통한 전체 신도의

기능을 통해 사찰은 그 관리와 사업계획수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도스용으로 제작돼 최단판넬 것으로 알려진 '아나타'를 비롯, 역시 도스체제로 발매됐다가 최근 원도95체제로 확장 재발매된 '보리수' 등이 있다. <은>



캘리포니아 북쪽 스투어트 포인트 인근 아산에 건립된 '오디안'의 황금빛 본당.

## 캘리포니아에 사찰건립 '뽐' 신도 80만명 넘어...티벳불교 관심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불교 사찰이 건립되는 등 미국 곳곳에 절이 들어서고 있으며 신도도 날로 늘어난다. 현재 80만명이 넘는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명상과 선 문답을 강조하는 일본의 쟈(禪)불교에서 신비주의 색채가 강한 티벳불교 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는 '오디안'이란 티벳불교사원이 세워졌다.

닝마센터의 후원을 받아 조성된 '오디안'은 약 32미터 높이의 황금빛 본당과 수십개의 승방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인 재가불자의 전문 수행처로 제 공되고 있다.

현대사회 영상매체의 제1주자라 할 수 있는 TV를 이용하여, 유아의 전인교육과 심성 불교TV의 불교유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영시의 활용가 능한 기초모형을 제시했다. 박씨는 영상매체를 통해 유아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포



## 불교유아교육 방송모형 제시

동국대학교학원 박경주씨 석사논문

기존 TV프로 분석 불교가치관 추가

기초연구'라는 석사논문을 통해 인지적 발달단계에 있어 결정적 시기에 놓인 유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교구인 TV의 불교적 활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논문 '영상매체...'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유아교육 프로그램인 KBS-1TV 'TV유아' MBC-TV

맷을 '우리는 톰비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실생활과 자연스레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종교관을 키우게 하고, 유아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

## 방송가 소식

btn '고려대장경' '출가...' 등 10편

홍콩 국제영상물 전시장 출품

불교TV가 오는 12월 5일~8일 홍콩서 열리는 국제 영상물 전시장 MIPASIA FILM MARKET에 '고려대장경 1·2편', '한국의 명찰 5편', '영상포럼 내원사', '통도사', '예불', '출가, 새로운 탄생' 등 총 10편을 출품한다.

MIPASI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물(다큐멘터리 영화, 만화) 전시 및 세미나 박람회. 이번에 처음으로 출품하는 불교TV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불교TV를 세계 영상

시장에 널리 홍보하고 한국의 불교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TV는 참가국과의 정보교환과 유대관계 모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외국사와의 합작의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

불교TV 현재 한국종합유선 방송협의회와 공동부설치되는 등의 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곧 출품작에 대한 영문자막, 더빙, 브로셔 제작도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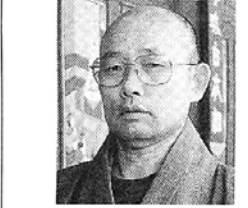
월, 화요일 오전 10시15분부터 55분까지 불자들을 찾아가다.

## 中 원명법사 일대기 '불문춘추' 19일부터

불교TV가 드라마 '불문춘추' (매주 금 12시35분)를 오는 19일부터 방영한다.

드라마 '원효대사'의 후속으로 방송되는 '불문춘추'는 120여년전의 중국불교협회의 제1대 회장을 역임한 중국고승 원명법사의 일대기를 다룬 것.

중국 조정의 관료화와 대일 정책에 반대하다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불문에 귀의한 원명법사가 걸어온 불도의 길을 총 6부작에 걸쳐 방송하게 된다.



해남스님

## 해남스님 진행말야 '자비의 전화' 월·화

BBS의 신형상담 프로그램 '자비의 전화(PD 전송환)'는 지난 8일부터 해남스님(불전국역 연구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전 진행자 해남스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해남스님은 매주

열악한 처우에 신심 하나로 버텨왔던 재가종무원들이 불교를 이주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종단도 전산네트워킹 구축을 추진하는 등 눈부시게 첨단화되고 있다. 정작 본말사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주먹구구식 인력관리와 낮은 처우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7월호 월간 <대중불교>가 전국 주요 본사의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



## 목탁소리

김제경 (취재2부 기자)

면 지방 본말사의 급여수준은 민주노총에서 95년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곳도 드물었다. 또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지급 등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마저 외면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근속년수별 종무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 떠나는 종무원들

이렇게 떠나는 종무원들 중 많은 수가 타종교로 빠져든다는 데 있다.

스님의 대리인이자 사찰의 첫번째 신도인 종무원들이 불교를 원망하며 타종교인이 되는 현실을 과연 누가 조장하고 있는 걸까. 종무원들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인이다. 사찰업무에 종사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신심과 봉사직 때문이기 보다는 '신심도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57.14%), '전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21%) 등의 순으로 대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계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호삼아 내 이웃의 고통을 나눠가지자는 열병을 토 하면서도 정작 울타리안 가장 가까운 신도들이 처한 고통에는 눈감아 버리는 아이러니를 끝내야 한다.

##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 전국지사·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1. 자격 주수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3. 대상지역 전국 각 도·시·군·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4. 모집기간 96년 7월1일 ~ 7월 31일
5. 선 발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6. 보 낼 곳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전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법법의 생행학 · 현대학 · 세계학 (주)현대불교신문사 (대)737-8881